

‘안녕 못 한’ 국민들에 새정치로 희망 줄까

2013 이슈 진단

⑦ 안철수 독자세력화

호남 중심의 세력화 그칠 땐 또 다른 ‘호남당’ 전략

‘安風’ 태풍 되려면 참신·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가을 한해 국내 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국정원 대선·선거 개입 의혹 및 NLL 포기·대화록 실종 등으로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일삼는 과정에서도 안 의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국민으로부터 꾸준히 주목받아왔다.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는 안 의원이 지난 4·28 대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돌연 후보를 사퇴한 뒤 미국에 청거했던 안 의원이 돌연 귀국해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이다.

안 의원은 6월에는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출범시키고 새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하며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실행위원회를 인선하며 사실상 정치세력화에 나섰다.

그러나 아쉽게 영입했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직에서 사퇴하고, 다른 인재영입 작업에 대해서도 ‘이삭줍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여기에 NLL대화록 국정에

서 끊임없이 입장을 내지 못하자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제안하며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 위원회’를 만들며 창당 행보를 본격화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지지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대전을 시작으로 새정치추진위원회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면서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신당 창당까지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전에 얼마나 새롭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영입할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는 지배적이기 때문이

다.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인물 영입에 있어 민주당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실행위원회 선임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들이 포함돼 정치 철학과 정체성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출범한 새정치추진위원회도 인재영입과 관련해 모든 인사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파연 안 의원이 추구하는 새정치에 걸 맞는 인재들만이 모일 것인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영남지역의 인물난 또한 여전한 해결제로 남아있다.

향후 영남권 세력화 없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만 이뤄질 경우 차치 잘못하면 ‘안철수 신당’도 민주당처럼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호남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안 의원 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신하고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과 구체적인 ‘새정치’ 실행방안을 제시해 보일 때만 ‘안풍(安風)’이 ‘찻잔 속 태풍’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끝>

/최권밀기자 cki@kwangju.co.kr

‘새정주’ 대전서 첫 전국 순회 설명회

내년 지방선거 전 창당 시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주)’가 17일 대전에서 첫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신당의 정치적 지향과 창당 방향 등을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연설에서 “‘정정된 정치일정에 참여한다는 대원칙은 확고하다. 정치 일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이어 “신당의 정당 구조를 지금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지금은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고, 앞으로도 외연을 넓혀가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방향을 소개하고 알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모적인 정쟁에 훈싸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를 바꿔 생산적인 경쟁체계와 결과를 내는 게 우리 포부”라며 신당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세(勢) 과시를 통해 여론을 몰아가는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새정주측은 설명했다.

새정주의 전국 설명회는 오는 19일 부산, 26일 광주로 이어진다.

/최권밀기자 cki@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7일 대전에서 열린 새정치 추진위원회 지역 순회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주)’가 17일 대전에서 첫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신당의 정치적 지향과 창당 방향 등을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연설에서 “‘정정된 정치일정에 참여한다는 대원칙은 확고하다. 정치 일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이어 “신당의 정당 구조를 지금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지금은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고, 앞으로도 외연을 넓혀가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방향을 소개하고 알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모적인 정쟁에 훈싸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를 바꿔 생산적인 경쟁체계와 결과를 내는 게 우리 포부”라며 신당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세(勢) 과시를 통해 여론을 몰아가는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새정주측은 설명했다.

새정주의 전국 설명회는 오는 19일 부산, 26일 광주로 이어진다.

/최권밀기자 cki@kwangju.co.kr

무

소

속

안

철

수

의

원

이

는

17

일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